

“중소기업 ESG 경영 필수”

디스피릿, 전북 최초 간병인 매칭 플랫폼 ‘헬퍼’ 출시

전주지역 청년창업 거점공간 ‘오렌지플래닛’ 입주기업으로 간병 일자리 구직 위한 전용 앱 개발

전주시, ‘제2차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전문가·기업인 등 참여 ESG 경영 확산 위한 실행방안 논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규 위반, 환경 오염, 인권침해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관리하고, 대기업이나 정부·지자체 공급망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사회혁신전주에서 기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속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2차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선희공작소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의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 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은 “ESG 실천은 ESG 항목을 공시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활동”이라며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건강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모든 주체가 내재화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한성 KMA ESG경영센터장은 “법규 위반,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관리하고, 대기업과 정부·지자체 공급망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필수”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또 김진희 LG이노텍 책임은 “ESG 경영은 뉴노멀화되었으며,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ESG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실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자와 참여자가 함께 소통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사회혁신전주와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지역 청년창업 거점공간 ‘오렌지플래닛’에 입주한 한 창업기업이 전북 최초로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디스피릿(대표이사 이도연, 이도현)은 간병 일자리 구직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헬퍼’를 정식 출시·운영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디스피릿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회 전주 창업경진대회에서 ‘1:1 간병 매칭 플랫폼, 헬퍼’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오렌지플래닛에 입주한 창업기업이다. 전주시와 스마트게이트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디스피릿은 어떻게 간병인을 구해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도내 간병인의 특성과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응형 웹페이지를 개발해 지난달 서비스를 오픈했다.

간병매칭플랫폼 ‘헬퍼’를 통해 간병인들은 24시간 상시 구직이 가능하며, 보호자들은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간병인들의 정보를 확인한 뒤 믿고 맡길 수 있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헬퍼’ 앱이 출시된 지 얼마 안됐지만 약 600명 이상의 간병인이 다운로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간병인 A씨는 “저렴한 월 정보이용료로 일자리를

끊김 없이 유지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디스피릿은 현재 전라북도 내 종합병원 5곳과 광주광역시 내 종합병원 8곳과 협력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장에 나갈 계획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과 전주시의 협업을 통한 창업가들의 열정과 창의, 도전이 현실이 되고,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형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한

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그간 생계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

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거면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테마가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시범 운영

전주독서대전 기간 씬, 문화, 예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8일과 9일 총 4회에 걸쳐 ‘테마가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전주지역 5곳의 특화 도서관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과 여행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자 내년에 추진할 다양한 도서관 여행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책기동도서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기획했다.

8일 오전 열리는 1코스는 ‘책+씬’을 테마로 숲 속에서 시를 벗 삼아 휴식

할 수 있는 확산숲속시집도서관과 전주여행의 첫 시작점인 컷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돼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다. 8일 오후 2코스는 ‘책+문화’를 주제로 서도순예술훈에 위치한 물결서사와 뽕밭의 미술관과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공작소 등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된 공간을 경험해볼 수 있는 코스로 짜여졌다.

9일 오전 3코스는 ‘책+예술’ 코스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과 분야별 아트북과 절판본 등 희귀 예술도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북(Bigger book) 등이 있는 컷마중길 여

행자도서관을 여행할 수 있다. 9일 오후 4코스로 기획된 ‘책+자연놀이’ 코스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여행 코스다. △책기동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 △노송광장 자연놀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트윈세 대 전용공간 ‘우주로 1216’ △만내호 수 산책 △유아숲놀이터 체험 등 책과 자연놀이가 결합됐다.

전주 도서관 여행 해설사가 인솔 및 해설을 진행하며, 도서관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테마가 있는 도서관 여행’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규 도서관 여행 코스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ESG 시대 대체투자’ 전주금융발전 심포지엄

전주시·한국증권학회·국민연금연구원,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자본시장 역할 등 논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전주시가 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ESG 시대를 선도하는 대체투자 방안을 두고 논의의 장을 열었다.

전주시와 한국증권학회(회장 박광우), 국민연금연구원(원장 권문일)은 지난 1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ESG 시대의 대체투자’를 주제로 ‘전주금융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2회 지니포럼’의 연계행사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국민연금기금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체투자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정희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체투자 ESG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노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사모시장의 ESG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 및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글로벌 사모펀드의 ESG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재현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ESG 기반의 대체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연기금이 ESG를 고려하는 데 있어 선결조건



전주시와 한국증권학회,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1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ESG 시대의 대체투자’를 주제로 ‘전주금융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과 ESG가 대체투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김재욱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김동양 NH투자증권 ESG 금융팀장, 박재훈 금융위위원회 과장, 이학구 KTB 자산운용부사장,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 조은영 국민연금연구원 기금평가팀장 등이 참여해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 및 자본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심포지엄이 ESG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ESG 요소들을 대체투자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자본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제2회 지니포럼이 열렸다.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를 주제로 국제금융컨퍼런스, 전북투자대모데이, 스타트업발굴과 육성행사, 기후환경세미나, 아이디어퍼칭데이 등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대체투자 방안 토론은 낯설고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관심이 높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증권학회, 국민연금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협업하여 금융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관련 기관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